

치 사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며 마음이 맑아지고 우리의 삶에 웃음이 넘쳐가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더 나누는 것으로 다 함께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마음가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인연과 공덕으로 우리 사회가 한층 향기로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사회가 편안해지고 이웃이 널리 행복하기를 바라는 시대적 소명에 맞추어, 겸허히 기여하고자 했던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이제 우리나라 복지계를 대표하는 위상으로 어엿하게 발돋움하였습니다.

불교사회복지 저변확대와 사회적 기여로 스스로를 평가하고자 했던 20여년의 보살행이 이루어낸 결실이자, 현장 일선에서 묵묵히 실천하신 사부대중의 소중한 성취라 할 것입니다. 올바른 신심으로 정진하신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대가를 바라지 않는 보시의 실천은, 받는 사람은 물론 베푸는 스스로에게도 넓은 행복에 들어서게 합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모두에게 좋은’ 무주상보시의 가르침에 스스로 감동하는 지대한 공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불은에 보답하고자 하는 오늘은,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 된 실천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사회적 모범이라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고통은 크지만 남의 아픔은 안 보이고, 자신의 허물은 잘 모르지만 남의 실수는 잘 보이는 것이 미혹한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무주상보시를 실천하고 참여하는 일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부처님의 성품임을 성찰하고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것은 진정한 지혜의 발현이며 대승보살의 수행인 것입니다.

특히, 2001년 시작한 ‘난치병 어린이돕기’는 지난 동안 400여명의 어린 생명에게 10억원이 넘는 보살행을 실천해 왔습니다. 이에 더하여 매년 수많은 복지 종사자들의 자애로운 마음이 깊게 담겨있기에, 오늘의 울림과 같은 ‘더 나눔’의 진정한 의미이며, 사회적 선도이자 희망의 표상이라 할 것입니다.

복지재단 소임자와 시설 종사자, 그리고 자원봉사 여러분에게 거듭하여 감사와 격려를 전하며, 정성으로 동참하신 교구본사와 전국 사찰의 사부대중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밝은 내일을 위해 선뜻 후원의 마음을 내어주신 여러 기업의 동참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원력과 공심을 든든한 반석으로 삼았기에,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이루어가는 불교복지센터 건립이 훨씬 더 가깝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복지 백년의 거점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안정적인 불교사회복지를 누구나 친절하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모두의 원력과 실천, 그리고 공덕의 인연이 생명의 불씨를 보듬어 소중한 순간을 채워가고, 이로써 모두가 유익한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무량한 공덕이 난치병으로 시름하는 어린 생명들과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 향기롭게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61년 4월 23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